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영천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 실시

장병욱 기자 | 승인 2026.11.03 15:28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당국과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지난 2일 지사 청사에서 영천소방서 남부119안전센터와 함께 '2026년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공사 직원과 소방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해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참가자들은 연막탄으로 화재 현장을 재현한 뒤 신고부터 직원과 민원인 대피, 초기 화재 진압, 소방대와의 합동 진화까지 단계별 훈련을 진행했다.

화재 대응에 필요한 소방시설 사용 교육도 병행됐다. 소화기와 소화전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활용 방법을 실습하며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였다.

영천지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청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전춘희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장은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직원과 방문객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장병욱 기자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